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민혁 영화 '폭로'서 진실 밝히는 국선변호사 열연



연합뉴스

씨엔블루는 2009년 8월, 11월 일본에서 각각 미니앨범 'Now or Never' 'Voice'를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멤버는 강민혁, 정용화, 권광진, 이종현이었으나 그해 권광진이 탈퇴 후 이정신이 합류했고 2019년 이종현이 탈퇴해 현재의 팀이 됐다.

2010년 1월 국내 데뷔 미니앨범 'Bluetory' 수록곡 '외톨이야'가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곡으로 데뷔 2주 만에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같은 해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 'Love' 역시 각종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인기에 힘입어 2010년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I don't know why' '직감' 'Hey you' 등을 히트시키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씨엔블루에서 드러머를 맡은 강민혁은 완벽주의 성격으로 화제가 됐다. 멤버 중 한 명은 "드럼이 눈앞에 없을 때도 다리를 드럼 삼아 끊임없이 연습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만족하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2010년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 딸'으로 첫 연기에 도전한 그는 무명 밴드인 '오합지존'에서 노래와 드럼을 담당하는 뮤지션 황연두 역을 맡았다. 숙련된 연주 실력으로 실제 드러머답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후 2011년 MBC '넌 내게 반했어', 2012년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3년 SBS '상속자들', 2016년 SBS '딴따라', 2017년 MBC '병원선'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궁합' 등에 출연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SBS 연기대상에서 '상속자들'로 뉴스타상을, 2016년에는 '딴따라'로 SBS 연기대상 로맨틱코미디부문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연기 활동과 동시에 씨엔블루 활동도 꾸준했다. 2020년 11월 여덟 번째 미니앨범 'RE-CODE'를 발표하며 2017년 발매한 7집 미니 앨범 '7'CN' 이후 약 3년 만에 컴백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멤버 전원이 30대에 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 씨엔블루가 팀명 'Code Name BLUE'를 다시 정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과거 현재 미래(Then, Now and Forever)'를 포함해 '오늘은 이만(Till Then)' '추워졌네.(Winter Again.)' 'Blue Stars' 등이 수록됐는데 그 중 '과거 현재 미래'는 발매와 함께 전 세계 10개 지역 아이튠즈 전체 앨범 차트 1위에 올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후 'ZOOM' 'WANTED' 'TRIGGER' 'LET IT SHINE' 등 일본과 국내에서 다양한 앨범을 내온 씨엔블루는 10월7일과 8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콘서트 CNBLUE LIVE 'CNBLUENTITY'를 개최한다. 2017년 진행했던 단독 콘서트 'Between Us' 이후 약 6년 만의 국내 콘서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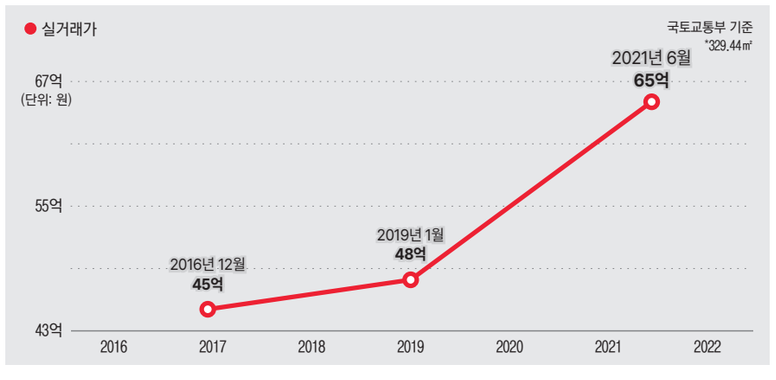
CNBLUE와 IDENTITY가 합쳐진 'CNBLUENTITY'라는 공연 타이틀에 맞게 씨엔블루의 정체성을 가득 담았다. 라이트한 팝부터 하드한 록까지 씨엔블루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만에 연기에 나서는 강민혁은 오늘 개봉 영화 '폭로'에 출연한다. 본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범행의 시인과 부인을 거듭하는 피고인, 현장에 있던 제3의 존재로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내용이다. 그는 본드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국선변호인 이정민을 연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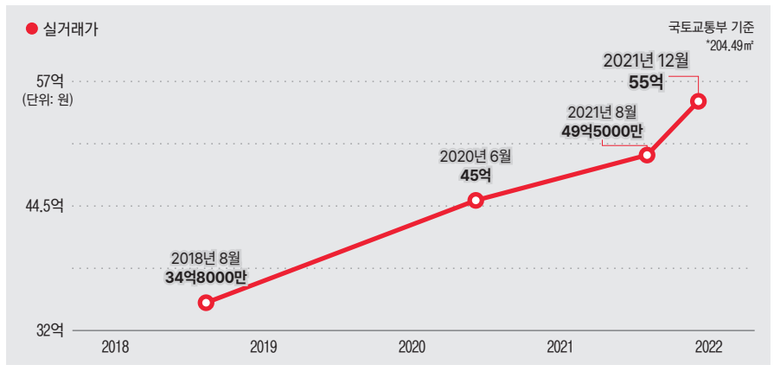
한편 강민혁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A아파트 한 호실을 28억6800만 원에 분양받았다. 공급면적 201㎡(약 60.80평), 전용면적 159.603㎡(약 48.27평) 규모로 동일 면적이 올해 7월 65억 원에 손바뀜됐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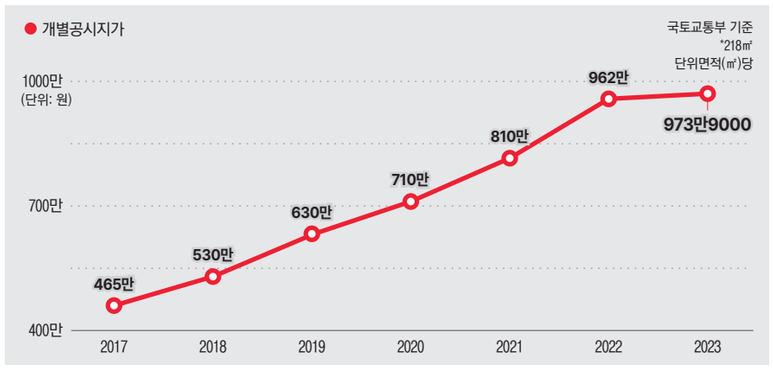
갤러리아포레(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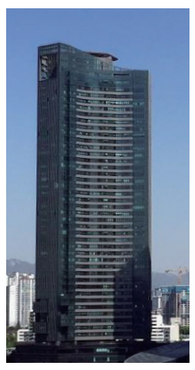
빌딩(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형석 전)마니커 대표이사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회장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사로 일하다 회의감을 느끼고 닭고기시장이 향후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1985년 중소 계육 사업체인 대연식품을 창업했다. 이듬해 도계공장을 준공했고 1988년 도계육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육계사육사업부를 신설, 1993년 부화장까지 준공하며 규모를 키웠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상그룹의 계육사업부인 대상마니커를 인수하면서 마니커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대상마니커는 누적적자가 7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성장가능성을 보고 인수한 것이 좋은 선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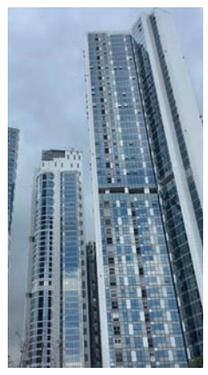


됐다. 성장을 거듭한 마니커는 인수 후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육계 계열 전 과정을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가금학회 부회장, 택산상역 대표이사, 한국계육협회 회장, 한국계육협회 명예회장,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사,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사 등을 지냈다.

이수용 현)지티원 대표이사



이수용 지티원 대표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해온 이 분야 전문가이다. 1982년 대우 전산실 프로그래머를 시작으로 대우통신과 펜타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SW), 데이터베이스(DB)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 웹과 닷컴, 자바 열풍이 불 때 독립해 '아이티플러스'를 설립했다. 투자를 늘려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로 아이티플러스를 매각하고 2008년 솔루션 개발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회사 '지티원'을 설립했다.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을 주력제품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는 한국 e-비즈니스 대상, 한국우수벤처기업상,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우수벤처 경영인상, 소프트웨어 산업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올해 7월 지티원은 신협중앙회 애플리케이션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박원호 현)디아이 대표이사 회장



박원호 디아이 대표이사 회장은 글로벌 가수 싸이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연세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한 뒤 1979년 반도체검사장비 기업 동일교역(디아이의 전신)에 입사해 1984년 상무이사, 1986년 대표이사 부사장, 1990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디아이로 사명이 바뀐 후 1996년 디아이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2002년 회장에 올랐다. 디아이는 싸이의 조부이자 박 회장의 부친인 고(故) 박기억 창업주가 1955년 일본에서 광학제품을 들여와 파는 수입업체인 무역회사 동일상사를 설립했다. 이를 모태로 한 디아이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제조업체이며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박 회장은 초정밀을 요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디아이를 업계 강자로 키워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SK에코플랜트 '청계 SK뷰' 완판… 183.4대 1 경쟁률

서울 성동구

SK에코플랜트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공급한 '청계 SK뷰' 아파트가 단기간 100% 계약을 마쳤다. 청계천변에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SK뷰'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이 더해져 고객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서울에서 올해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완판에 이어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인정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청계 SK뷰는 11일~13일 당첨자 계약 이후 16일 예비 당첨자 계약을 거치며 전 가구 계약을 마무리했다.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는 1만 건이 넘는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7가구 모집에 총 1만455건의 청약이 몰렸다. 전용면적 84㎡는 1362대 1·평균 18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계 SK뷰 투시도. SK에코플랜트

분양 관계자는 "오래도록 이번 분양을 기다렸던 고객들이 많았고 청계천변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철도 2·5호선 더블역세권 등의 입지적인 장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 구성 등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서울 내 여러 분양 단지 중에서 이번 청계 SK뷰에 청약을 넣은 계약한 고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올해 2월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랑구 '리버센 SK뷰' 완판에 성공한 것에 이어 이번 청계 SK뷰 완판까지 연이어 단기간에 성공하며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청계 SK뷰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3개동·전용면적 59~84㎡·총 396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신답역이 각각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청계천 수변공원을 집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청계천 조망도 가능하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청량리역 상권과 복합쇼핑몰·영화관 등이 입점한 왕십리역 상권 이용이 용이하며 용답동 주민센터·용답도서관 등도 주변에 있다. 용답초·마장중·한양대부속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또한 입주민 편의와 쾌적한 단지 환경을 위해 지상은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된다. 다양한 테마의 놀이기구로 구성된 어린이 놀이터와 옥상형 휴게공원인 하늘공원이 조성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어린이 도서관·청소년 도서관·시니어클럽 등 공유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에코밸리 산단 충남 산업단지계획 의결


천안 에코밸리 산업단지 조감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천안시는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는 13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면 수남리 일원 10만6000평(34만9000㎡)에 조성된다. 2025년 사업 완료 시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이다.

천안 에코밸리 산단은 2020년 5월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2021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농지전용·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7월 심의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13일 개최된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욱 내실 있는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교통 분야 등에서 조건을 부여해 의결됐다.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건사항의 반영 등 조치 결과를 조속히 접수하고 검토해 올해 중 승인할 예정으로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